

태풍 '미탁' 오늘밤 전남 상륙

최고 300mm 비에 강풍 예보
농어민, 추가 피해 '초긴장'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은 2일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전남지역 농·어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태풍 '미탁'이 다시 상륙한다는 소식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최고 300mm 비에 강풍 영향권=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18호 태풍 미탁이 2일 새벽부터 3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에 직접 영향을 주며,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일 오후 3시 기준 태풍 '미탁'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 강풍반경 310km)은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은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2일 자정께 목포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3일 낮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예상경로가 전남을 관통하는 만큼 17호 태풍 '타파'나 16호 태풍 '링링' 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3일까지 광주 전남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0~300mm(지리산 부근 등에는 400mm 이

상) 안팎이며, 해안가에는 35~45%(내륙은 15~3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안가는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2~3일 만조시간과 겹쳐 높은 파도에 의한 월파가 예상된다.

◇전남 농어민, 피해복구 속 또 태풍에 초긴장=전남지역 농어민들은 제 16호 태풍 '링링'이나 17호 태풍 '타파'로 입은 피해 복구도 못한 상황에서 제18호 태풍이 직접 전남에 상륙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름에 잠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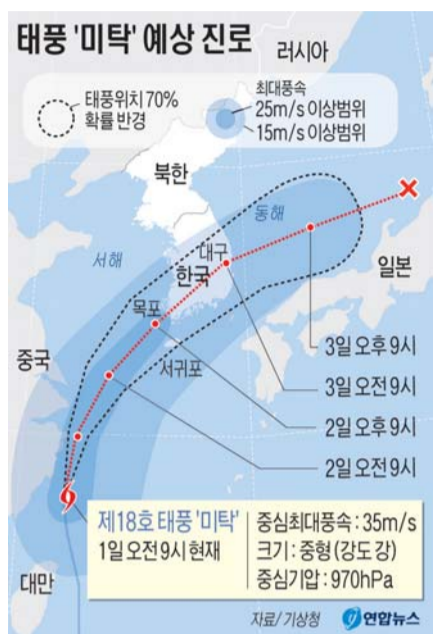
전남도는 '링링'으로 입은 벼 도복, 농작물 침수·유실·낙과·시설물 피해만 8721ha에 달하는데다, '타파'가 휩쓸고 가면서 입은 손실도 4219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링링이 동반한 강풍과 비로 쓰러진 벼 피해 면적만 6683ha에 이르지만 논바닥에 쓰러진 벼들은 27%만 세워놓은 상태. 타파가 쓰러트린 벼도 3414ha에 달하지만 고작 28.5%만 세워 묶어놓았을 뿐이다.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도 88%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미탁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데 따라 농촌에선 추가 피해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확기에 접어든 벼 농가와 과수 농가에 대해 태풍 전 수확을 독려하고 있지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전체 재



배면적(15만4091ha)의 10.5%(1만6185ha)만 수확한 상태다. 과수농가도 비슷하다. 배의 경우 전체(3143ha)의 82%(2577ha)만 수확이 마무리됐다. 그나마 배 재배 농가의 경우 상품성 유지를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일손 돕기 인력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과 수확도 30%(112ha) 수준이고 무화과도 75% 수확에 그치고 있다. 어민들도 링링과 타파로 입은 양식장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추가 피해를 입을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남기고 검찰, 전국 특수부 폐지한다

문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대검, 검찰 개혁방안 마련

검찰 개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1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놓는데 이어 대검찰청 역시 비슷한 내용의 시책을 내놨다. 특히 대검의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최근 긴장감이 감돌았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 부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각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전남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총 37개 기관에 57명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북 최선희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 합의"

북한은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미가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최 제1부상은 담

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미간 실무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한 이후 3개월여만에 열리는 것이다.

최선의 제1부상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제1부상은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이 열린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측이 실무협상 개최 합의 사실과 일정을 먼저 공개한 만큼, 장소는 미국측에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뤘던 '미국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 민영돈 교수 당선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의학과 민영돈(61·사진) 교수가 당선됐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차기 총장 선거 투표를 실시한 결과, 민영돈 후보가 유효투표의 58.6%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윤창룡·박대환·이봉주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민 당선인은 광주일고와 조선대 의대를 나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교수, 조선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산학협력단 방사선응용진흥센터장을 거쳐 2011년부터 2년간 조선대병원장을 지냈다. 장기기증재단 이사장과 대한외과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결



핵협회 광주전남지회장, 대한위암학회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약 중이다.

민영돈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에서 어떠한 인터뷰도 적절치 않은 만큼 이사회로부터 공식 임명되면 대학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낮은 자세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풍, 조용히 지나가기를..." 제18호 태풍 미탁이 3일 새벽 전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1일 여수 국동항에 많은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